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7. 15.(목)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성원, 서기관 강희정, 사무관 윤연미 • ☎ (044)200-5610, 5614, 5616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담 당 자	• 과장 고우진, 연구관 한인성, 연구사 이준수 • ☎ (051)720-2210, 2230, 2231	
	국립수산물과학원 양식관리과	담 당 자	• 과장 황형규, 연구관 김현철, 연구사 최진 • ☎ (051)720-2410, 2420, 2431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전남 내만에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 발령

-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등 신속대응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 내만(득량만, 함평만, 가막만)의 수온이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 발령기준인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7월 15일(목) 14시부터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2020년도에는 8월 14일 제주 연안과 전남 함평만에 고수온주의보 첫 발령

7월 15일 10시 기준으로 고수온주의보 발령 대상해역의 수온은 전남 득량만(보성군 동읍) 28.5℃, 함평만(함평군 석두) 28.0℃, 가막만(여수시 신월) 27.5℃이다. 7월 초에 시작된 장마가 약 1주일 만에 소강상태로 접어든 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현재 전남 내만의 수온은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득량만 수온변화 : 2주전 25.3℃ → 1주전 25.1℃ → 현재 28.5℃

득량만 등 전남 내만은 수심이 얇고 넓은 갯벌이 분포하는 반폐쇄적 구조로 되어 있어,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특징을 보인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물 속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양식생물의 생리적 기능이 약화되어 대량 폐사 발생이 우려된다.

고수온 시기에 양식생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동·선별 작업 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이용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관심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전남 내만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해당지역 양식장을 대상으로 먹이급이 조절, 대응장비 가동, 면역증강제 투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도를 지속해 왔다.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해역의 양식어가에 액화산소공급기, 저층해수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설치(40억 원)를 지원하였고, 이와 함께 어업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동·서·남해 140개 지점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며, 홈페이지/스마트폰 앱/문자를 통해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대책반(반장: 수산정책실장)을 설치하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분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여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및 사료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투여, 조기출하 등을 독려하고 점검하여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양식 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현장 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고수온주의보 발령 해역

고수온특보발령 해역도

(2021년 07월 15일)



<2021년 7월 15일 고수온주의보 발령 해역>